

[성 구]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시편 38:13-13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채희근(kyesin@gmail.com)
편집인: 윤성천
전화: 031-768-1980
팩스: 0303-0944-2936

2023년 10월 13일 (금)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 (Kyesin)

• 홈페이지: kyesin.org

제 139호 1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

제44회 정기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 총회 제 44회 회의가 2023년 9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초월제일교회당에서 156명의 총대회원이 모여 1부 예배와 2부 회의를 하였다.

1부에서 예배는 총회장 채희근 목사가 사도행전 15:1-21절을 가지고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2부에서 목사 안수식을 통해 최종오, 이시하라 유우키, 장진규, 이인성 강도사가 은혜 가운데 목사가 계신총회 목사가 되었다. 이후 임원 개선을 하니, 총회장 채희근 목사, 총무 김정경 목사, 서기 남성호 목사, 부서기 홍진욱 목사, 회계 박천수 장로, 부회계 심용보 장로, 서무서기 석진오 목사가 선출되었다.

2부 속회에서 각 부 보고와 각 노회 보고를 받았으며, 교역자 가입에 있어

서 명륜교회 김찬중 목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장로선택 청원은 위례광명교회 4명, 덕평교회 1명, 당하제일교회 3명, 성산교회 4명을 받기로 하였다.

특히 계신 총회는 교단적으로 선교에 힘쓰고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위한 회의가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하였다. 결의 사항 중에 교역자 청빙은 복수추천권, 유아세례 연령권,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는 총회 상임위의 결의 하에 은퇴한 목사가 시무하는 건, 위임목사는 7년을 시무 후에 청빙에 응할 수 있는 건, 최초 당회를 조직할 경우 세례교인 25명 이상으로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건 등을 다루었다.

기사 남성호 목사

총회장 인삿말



채희근 목사
도봉교회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생활의 전통과 밝히 배우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총회장으로서 저는 제가 먼저 이 두 가지 일에 솔선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총회원들이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할 7대 과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계약신학연구원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 그리고 선교지 교회들을 지원하고 교류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목회자의 재충전과 영적성숙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역자 산기도회, 수양회 및 총회주관 사경회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일학교 교육 및 노회별 혹은 총회 연합으로 중고청 수련회를 계속 활성화해 나가자 합니다. 여섯째 노회를 포함하여 총회관련 모든 기관들이 총회본부 회의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총회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총회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혁적인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신학연구원 신학생 모집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 성경을 바르게 깊이있게 배우는 곳,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길

과 정

- 성경연구과정(8학기)
- 신학연구과정(6학기)
- 편목과정(2학기)

문 의 처

- 입학·진로 010-8781-7471
- 교 무 처 010-3790-0159

좋은 제도

- 입학생 전원 학비 무료
- 지방의 학생들은 온라인강의로 공부할 수 있음
- 학사학위 있는 55세 이하 남학생은 신학연구과정 졸업 후 교육부 인가받은 석사(Th.M)과정 장학금 지원
- 졸업생은 강도사 인허와 본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선교 사명이 있는 자는 졸업 후 파송받을 수 있음
- 여학생은 성경연구과정 졸업 후 여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논 단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정성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흥철 목사
수원동부교회

I. 서론

19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The Evangelical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와 교단을 초월하여 교회 연합과 일치 추구하는 신앙 운동으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학과 선교 정신을 지칭한다. WCC는 이 운동이 “신학적 지평을 확장하고, 교파를 초월한 시야의 개방과 제 3세계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교회에 새로운 선교 영역을 개척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20세기 교회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운동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제안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한 교회의 실제적 기초는 신학적으로 포용주의 및 종교다원주의이다. 결국, WCC는 외형적인 교회 일치에 치중한 나머지 전통적 성경적 기독교 교리와 선교를 왜곡한 것이다.

II. WCC 신학 사상에 대한 고찰

WCC는 ‘어떻게 믿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믿느냐’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들은 교회 본래의 사명인 진리의 수호와 변증의 사명을 포기해 버렸다. 겉으로 무엇을 믿고 있다고 고백만 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는 상관하지 않고 모두 수용한다. 그들은 교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에큐메니칼 정신에 위배 되는 것으로 비난한다.

1. 신학적 자유주의

WCC를 태동케 한 단체나 기구의 지도부를 담당했던 이들의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적 성향의 인물들로 에큐메니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WCC의 목적은 세계교회의 일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진로를 교도하여 실권을 잡은 후, 그것으로 세계교회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WCC는 각 교회를 묶는 공통분모, 즉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축소된 신조 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개신교의 모든 자유주의 교회, 심지어는 유니테리안 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까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분명히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이며,

사회주의적이고, 성경적으로 참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멸시하며,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고,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사회주의적 지상천국의 수단으로 인용할 뿐이다.

2. 비성경적인 성경관

WCC는 성경을 전통 혹은 전통화의 산물로 본다. 그들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 66권만을 정경(正經)으로 보는 데에도 부정적이다. 성경의 절대 주권과 주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극단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인들과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미신적인 숭배 및 연옥 교리를 주장하는 희랍 정교회(Orthodox Churches)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신앙의 범위를 포용하는 사실로부터 그들의 기본원리는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나, 우리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주장된 교회의 인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WCC는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한다. 그들은 성경이 더 이상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되지 못하며, 성경이 일차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따라야 할 표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복음과 신조의 개념 차이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복음 원리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은 교회가 복음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복음이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재(實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리와 인격을 분리시켜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살아 있는 실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오류이다.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은 교회 연합을 위한 신조적 내용을 축소시키려 한다. 그들은 니케아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니케아 신조는 개신 교회들을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 세계가 공식적으로 성경적 신조로 수납해 왔던 신조이다.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은 진리의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행했던 신정통주의적 관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상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즉 객관적(客觀的) 계시의 부정이며,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하나의 신비주의나 불가지론(不可知論)으로 만들고

만다.

4. 교회론

WCC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교회들의 협의회”라고 보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단지 가시적 형태의 교회로만 제한이 된다. 그들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가시적 교회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그들 신학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WCC 신학의 모호성은 성례에서 극에 달하여,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WCC는 세례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거듭나는 데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WCC의 성례관은 성례주의적이며 의식주의적인 것이다. 구원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영적 변화이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심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유효하지 못하다. 기독교는 단순한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과 영의 종교로, 성례주의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5. 종교다원주의

WCC는 바르트(Barth)와 몰트만(Moltmann)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오다가 마침내는 ‘종교다원주의’의 영향까지 받게 되었다. WCC는 1961년 3차 뉴델리 총회에서부터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톨릭 예수회 신학자 카알 라아너(Karl Rahner)가 제시한 신학을 받아들임으로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포용하게 되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WCC의 입장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1990년 바르선언을 기점으로 WCC의 공식 입장은 종교다원주의로 급격히 기울어진다. 그 후 타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WCC 문서들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WCC 총회들 그리고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타종교에 대한 입장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한 혹은 명백한 차원에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을 훼손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이다.

6. 한 세계교회 지향-로마가톨릭교회와 우호적 관계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개신교회 안의 이단적 자유주의 사상뿐만 아

니라, 로마가톨릭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일치라는 명목하에 긍정적,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로마가톨릭교회에 대한 WCC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제와 우호 관계는 명백히 비성경적이며,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인 은혜의 복음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교회의 일체성(一體性, unity)이 영적, 교리적, 유형적임을 가르친다. 오늘날 교회의 배교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 교리적 순결을 무시한 연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스도 속죄의 범위, 세례의 대상과 방식, 목사직의 성격,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방식, 천년왕국과 휴거의 의미 등에 대해 견해의 심각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파적 차이점들을 무시하거나 포괄하는 초교파적 한 교회 사상은, 진리의 신념과 확신의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사실, 한 신앙고백이 없는 한 교회란 참으로 하나가 아니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의 기본 임무인 구령(救靈)의 영적 사명보다 사회참여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잘못이 아니나, 거기에만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구원’이나 ‘해방’ 더 나아가 ‘선교’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III. 결론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의 일체성이라는 목표는 좋지만, 이 운동이 취하는 교회 일체성의 개념은 명백히 비성경적이다. 그것은 기독교계에 현존하는 다양한 신학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조직체적 관심 즉 한 세계교회의 추구도, 자유주의와 천주교회를 배제하지 않는 한, 용납할 수 없고, 또 비록 이런 이단적 요소들을 배제한 연합이라 할지라도 초교파적 연합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에큐메니칼 운동은 타종교들에 대해 포용적 경향 종교적 다원주의, 혼합주의의 경향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배교와 타락의 모습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비성경적, 인본주의적, 이단적, 배교적 바벨탑 운동이다. <끝>

단상(斷想)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제물들〉

송기진 목사
산정교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 50:5)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신명기 33장에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와 수중에 있으며 그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는 여호와와 사랑하시는 백성을 '성도'(신 33:3)라 일컫고 있으며, 이후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는 은혜를 기뻐(대하 6:41)하고, 여호와를 사랑(시 31:23)하며, 여호와를 경외(시 34:9)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정말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단어 인지요?!

특히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성도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로 정의하신 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12)임과 하나님께서 수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심(13)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성도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을 요구

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기뻐 받으시는 제물들을 12가지 찾아 보았습니다.

첫째, 순종의 제물(삼상 15: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전 5:1)

둘째, 감사(시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12-15, 23) (욘 2:9)

셋째, 의와 공평(잠 21:3)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넷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호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섯째, 몸으로 산 제물(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후 8:5) (빌 2:17) (딤후 4:6) (벧전 2:5)

여섯째,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18)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

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일곱째, 이방인 제물(롬 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덟째,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헌금)(빌 4: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고후 8:5) (골 20:41)

아홉째, 찬미 제사의 입술의 열매(히 13:15) 15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 69:30-31)

열째, 선행/서로 나눔의 제사(히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열한째, 예수님 닮음(벧전 2:4-5, 21)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엡 4:15)

열두째, 기도(행실) 제물(계 5: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살전 4:3)은 분명합니다. 참 성도로서 삽니다. 남은 때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제물들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참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모든 기쁨(시 16:3)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본뜻을 찾아서-2

토브(טוב)



석진태 목사
덕평교회

히브리어 '토브'는 '좋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부터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아름다운', '귀중한', '기쁜'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wayyar 'elohim ki-tov; 창 1:4, 10, 12, 18, 21, 25, 31)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가

그만 뱀에게 속아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딤후 2:14). 하나님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나무를 하와가 볼 때 '먹음직도 하고'라고 하였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표현으로 창세기 3장 6절 원문에는 동일한 구조로 '그 여자가 보기에 좋았다(wattere ha'ishah ki-tov)'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말성경(두란노서원)은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와 같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하였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신앙에서 떠나 욕심으로 기울어진 까닭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이병규, 성경강해 창세기, 44쪽). 노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토브)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창 6:2, 3). 여호수아 때에는 아간도 말씀에서 떠나 욕심으로 기울어져 아름다운(토브) 외투 한 벌과 은,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말세에는

선한 것(토브; ha-Berit ha-ḥadashah. Israel: The Bible Society in Israel, 2000.)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딤후 3:1-7).

참고로 애굽 왕 바로의 꿈에서 '토브'가 일곱 이삭과 암소에 대해 사용되었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충실한'(창 41:5, 22), '좋은'(창 41: 24, 26)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8월 교단 연합 사경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 총회 8월 사경회가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2023년 8월 14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 목요일 오전예배까지 진행됐다. 사경회 첫날 개회 예배는 오후 7시부터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드리고 마지막 날에는 새벽 5시, 오전 10시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총 9명의 강사(박황우, 고석남, 채희근, 이용주, 지달용, 유영길, 박세덕, 이창욱, 김광호)가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한 장씩 설교하였고, 이에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또한 총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

도들과 해외에 있는 많은 성도가 온라인으로 사경회 말씀을 듣고 연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사경회 봉사 기간 중에 가락동부 교회(월요일), 송탄북부교회(화요일), 상대원 교회(수요일), 성산 교회(목요일)의 성도들이 헌신적인 참여하여 집회에 큰 불편함이 마칠 수 있었다.

코로나19 위험이 감소한 상황에 총회 산하 많은 성도가 참여하였다. 특히 공휴일이었던 8월 15일에는 940여명이 모여 은혜로운 집회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 및 사진 이나라 목사

네 명의 선교사에게 목사안수하다



2023년 9월 12일 제44회 계신총회 기간 중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회원분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인해 목사의 직분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과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기에 이번 총회에서 안수받은 4명(최종오, 장진규, 이시하라 유우키, 이인성) 모두

일본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신학교 기수가 다르고 사역 현장도 다른 4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함께 안수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후발주자인 저를 제외하고는 이미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안수받은 4명을 통해 일본 땅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스승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

니카라과 선교 소식

506 aniversario de la reforma de la Iglesia

Principio Regulator del Culto Bíblico

2023 OCTUBRE 27-28

Contenido de Conferencias

- 1) Principio Regulator del Culto Cristiano
- 2) La Cena del Señor
- 3) El Día del Señor
- 4) La espiritualidad de la fe
- 5) Levítico 1 y la importancia del Sistema de sacrificios
- 6) El vocabulario de la Salvación

Lugar Iglesia Presbiteriana Amor de Jesús, Masaya. (27 viernes) Holiday Inn Convention Center, Managua. (28 sábado)

Hora 5:30 pm - 8:30 pm (27 viernes) 8:30 am - 4:00 pm (28 sábado) El sábado el bus sale de Masaya a Managua las 7:30.

Objeto Pastores y líderes interesados en la fe centrada en la Biblia. La entrada de la conferencia de Managua será para los primeros 100 en llegar.

Cuota C\$150 Pago en sitio el sábado (Almuerzo garantizado)

Preguntas jlovehuny@dauim.net 8622 7609 (Sólo whatsapp)

Organizaciones colaboradoras
Seminario Reformado Latinoamericano
Unión de Misioneros Coreanos en Nicaragua

PAUL K. KIM
- SEMINARIO DE WESTMINSTER.
- ESCUELA TEOLÓGICA TALBOT.
- PASTOR, IGLESIA PRESBITERIANA (LA).

JI HYUN OH
- SEMINARIO DE WESTMINSTER.
- PASTOR, IGLESIA PRESBITERIANA (DALLAS).

JOE FITZPATRICK
- SEMINARIO DE WESTMINSTER.
- PROFESOR, SEMINARIO REFORMADO (LATINO).
- ANCIANO DOCENTE, IGLESIA PRESBITERIANA (PCA).

ISAIAH MARTINEZ
- COORDINADOR, SEMINARIO REFORMADO CENTRO AMÉRICA.
- MISIONERO, HUNDURAS.

JOSIAS KIM
- SEMINARIO PRESBITERIANA COREA (KYESIN).
- MISIONERO, PRESBITERIANO DE NICARAGUA.

2023년 10월 25일부터 니카라과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주의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작년부터 교회개혁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이 컨퍼런스는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난무하는 니카라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성경 중심의 신앙을 전하고 알리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세미 컨퍼런스로 10월 25-26일 오후에 니카라과에선 낯선 "장로교회와 언약신학"을 소개하고, 10월 26-27일 오전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를 있습니다. 메인 컨퍼런스로 10월 27-28일에는 "성경적 예배 원리"를 통해 보다 성경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컨퍼런스에서 많은 은혜와 위로가 있었고, 성경을 사모하는 이들이 늦은시간까지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초기한 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니카라과에 필요한 이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1)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니카라과이

기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니카라과에서는 나름 큰 규모의 컨퍼런스입니다. 하지만 선교사 혼자 준비하기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귀한 강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컨퍼런스의 또 다른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경중심의 신앙을 지키시는 목사님들과 리더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소 섭외, 숙소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담대히 준비할 뿐입니다.

신학교 사역과 더불어 니카라과에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진행되는 니카라과 개혁주의 컨퍼런스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사 김성현 목사

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안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하시고, 일본 선교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총회 신문을 통해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 교우들에게 일본 선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일본 땅에도 한국 못지않게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흘려졌음에도 현재 일본의 개신교 인

구는 일본 전체 인구의 0.4% 정도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대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를 값아 주실 것을 믿고(계 6:10),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믿습니다. 더불어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에 대한 '일본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분깃 또한 있을 것이기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본교회를 사용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글 이인성 목사